

## ‘慢慢地’와 ‘빨리’의 文化

崔 元 圭  
(忠南大 國語國文學科)

나는 1년간 국립대만사범대학에 교환 교수로 초빙되어 대만에 머물게 되었다. 그동안 해외에서의 회의나 세미나 등으로 몇 차례 미주·유럽·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한 일이 있지만, 길어도 2개월 정도여서 별로 외국 생활에 대한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여행은 1년간이라는 한정적 시간과 그곳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일로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나를 초빙해 준 대학에서 숙소나 생활에 여타모로 신경을 써 주었으므로 그곳에서의 연구 활동에 별 불편이 없었다.

내가 대만에서 가르치는 것은 韓·中 詩 比較 研究와 韓·中 文化 比較의 두 강좌이다. 수강생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두 논문을 쓰기에 열중해 있고, 도서관과 연구실을 드나들며 문헌 수집과 자료 비판에 여념이 없는 것같이 보였다. 나의 두 강좌 가운데 ‘문화비교연구’는 비교적 많은 학생이 수강하였다. 그 까닭은 일반 문화에 대한 흥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과 민족성’, ‘언어와 문자’, ‘문학과 예술’, ‘정치와 사회’, ‘종교와 민속’, ‘철학과 교육’, ‘경제와 과학’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가벼운 마음에서 수강을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한 학기 동안 주로 우리의 민족성과 중국의 민족성에 대한 대비를 시도하였다. 과연 동양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질성과 이질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 이와 반대로 과연 나는 또 우리는 그들의 눈에 어떤 존재로 부각될 것인가를 성찰하게 되었다. 여러 문헌을 뒤적이다가 林語堂이 쓴 「吾國與吾民」에서 자기 민족성을 온건성, 순박성, 자연에 대한 사랑, 인내성, 무관심, 교활성, 생식력, 근면 검약, 가족 본위의 전통, 평화성, 단순성, 유우미, 보수성, 호색적 습관 등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민족성에 대한 자성적 지적에 공감하는 바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내가 직접 그들과 같이 생활하며 체험한 바로는 우선 그들의 ‘慢慢地(만만디)’를 들 수 있다. 즉 이는 서둘지 않는 모습을

뜻한다. 그들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일이라도 ‘馬上(바로, 잠깐)’이란 말을 평소에 잘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도 그 시간에 관계 없이 ‘금방’, ‘바로’란 말로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이 금방이란 말이 몇 년 아니 몇 십 년이 걸릴 지 모르는 것이다.

나는 나와 같이 쓰고 있는 연구실의 중국 교수에게 첫 인사를 나누고 한국에서 가져간 인삼차 한 상자를 선물로 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자기 책상 위에 놓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하찮은 선물이라도 그것을 받고 한 달이나 방치해 둔 처사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나의 숙소에 소파가 남아 새 것으로 바뀌 준다고 학교 당국자가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새 소파가 도착된 일도 겹쳐 마음 속으로 그들에 대한 불쾌감이 솟고, 평소에 느낀 대로 과연 중국인은 느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츰 그곳 생활에 익숙하게 되니 ‘만만디’의 좋은 점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타이페이는 국제 도시로 날로 번창해 가고 있고,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로 오히려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자동차인데, 대만의 자동차 보유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교통 체증을 빚고 있듯이 타이페이도 대단히 심한 교통 체증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비교할 때 타이페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홍수를 이루어 더욱 교통 체증이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페이의 교통 사고율은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비해 극히 낮다. 그 까닭은 한마디로 그 ‘慢慢地精神’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가끔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갈 때, 운전수의 모습과 태도를 유심히 살피면서 한국의 운전수와 비교해 본다.

그들은 그냥 느린 것이 아니라 건디고 참아가며 느린 것이다. 진시왕 이후 몇 천 년에 이르는 전제 군주 정치를 견디며 참아 온 녀이 그들의 피에 흘러 온 때문인가? 萬里長城을 사람의 노동으로 쌓아 온 끈질긴 참을성을 지켜 온 때문인가?

나는 새벽이면 대학 캠퍼스에 산책을 나간다. 대만사범대학 캠퍼스는 타이페이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인지 연중 무휴로 새벽이면 온통 시민들이 학교 캠퍼스로 몰려와 조깅을 하거나 테니스, 농구, 에어로빅 등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방인의 눈길을 끄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서서히 날개를 펴듯 손을 뻗었다 되돌아 섰다 반복하는 쿵후의 太極拳이라는 운동이다.

나는 쿵후의 동작을 바라 보면서, 처음에는 許世旭 교수의 표현대로 그들이 즐기는 그 운동이 온 몸에 힘을 뻗 반신불수 환자의 기지개처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운동을 50년 동안 계속했다는 어느 할머니의 동작에서 참으로 신비한 것을 발견했다. 마치 한국의 승무에서처럼 느린 동작이지만, 그 동작은 우아한 禪美가 보이는 율동이었다.

발자국 하나가 움직이는 데는 참으로 많은 순간이 담겨 마치 하나의 큰 나무를 옮겨 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발이 옮겨져 땅에 닿았을 때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수 많은 뿌리가 내린 듯 요지부동 움직일 수 없는 모습으로 우뚝함을 느낀다. 팔 하나를 펴고 들어 올릴 때도 무수한 순간의 응집이 반복되며 허공을 칼로서

서히 가르듯 야뿔차고 날카로운 모습이 경이적이다.

더구나 돌아서 새로운 동작을 반복할 때는 완전히 지난 세월을 잘라 버리듯 그 어떤 미련도 일체 버린 채 새로움에의 발돋움이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준다. 나는 운동 전문가도 아니며, 결코 쿵후의 동작을 찬양할 이유도 없다. 또 그 운동이 인체에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지는지 관심도 없다. 다만 그 운동의 동작이 그렇게 느리고 비운동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능적 가치에 대한 놀라움을 생각하게 할 뿐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느린 동작이 柔之勝剛, 弱之勝強하는 無爲의 力學을 표출했다는 데 그 큰 의미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과 대만은 정치성 혹은 역사성으로 보아도 매우 유사하다. 대만은 최초로 중국 대륙의 남부인들이 건너와 정착했으나, 식민지를 구하는 유럽 제국들이 이곳에 진출하였다. 1621년경 화란인들이 대만을 점령하였고, 스페인인들이 대만에 상륙하여 거의 15년 동안이나 그들은 화란인과 남·북으로 대립하여 영토 쟁탈전을 벌였다. 그뒤 淸과 明의 정권이 뒤바뀌었고, 38년간의 화란 정치 식민지를 면할 수 있었다. 그후 1895년 淸日戰爭에서 淸나라가 패하자 끝내 대만은 日本에게 양도되니 식민지의 역사를 겪게 되었으며, 현재도 中國의 정부는 두 개로 민족적 분단을 겪고 있지 않은가?

대만인들은 그 많은 세월의 대부분이 외침에 의한 식민지 생활이었고, 자주적 중국의 정치권에 있었다 하여도 정권이 뒤바뀌는 혼란기를 겪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반도의 오천 년 역사가 外侮으로 점철된 모양과 비슷할 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도 유사하다. 그 때문에 나는 어느 나라의 민족보다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더

욱 친근감을 갖고 있으며 유사성을 느낀다. 내가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대만은 근자에 이르러 더욱더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성장이 눈에 띈다. 그런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이들에 비하여 차차로 하락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경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곽의 문제, 즉, 정치·사회·교육 등의 문제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기업은 우리나라처럼 대형화된 것이 없다고 한다. 겉으로는 작게, 내용은 크고 단단하게 성장을 거듭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대만제의 모든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모든 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임금 인상의 문제로 노동 쟁의나 파업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나는 아직 한번도 듣지 못했다.

특히 대학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놀라게 된 점은 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태도를 하거나 교수와 갈등하고 이데올로기 문제를 앞세워 분열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강의하고 있는 국립대만사범대학 국문연구소에서는 한 학기에 두서너번씩 중공대학 교수들과의 학술 교류가 행해지고 있으며, 겨울 방학 동안 교수와 학생들이 북경으로 학술 자료 조사 및 공동 학술 발표를 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고 돌아 온 것을 보았다. 정치적인 통일의 성급한 성취가 아니라 서서히 학술이나 문화가 교류되는 것이다.

나는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대륙인다운 '만만디'를 찾았다. 그것은 언제나 중국의 대륙과 대만이 하나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되, 서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 염

---

원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 앞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거시적이며 미래주의적 태도에서 더욱 그러한 것을 느꼈다. 「莊子」外篇에 있는 ‘今日適越而昨來’라는 말과 같이 눈 앞의 현상과 시간을 초월한 忍耐와 眞實이 그들에게는 스며 있다. 밖으로 보기엔 허술하고 느린 듯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는 그들의 민족성이나 그들의 ‘慢慢地’와 우리의 ‘빨리’ 성취하고 쉽게 이르고자 하는 것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깨달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 바를 찾아야 한

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그리고 빨리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나는 어느덧 우리 민족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빨리’라는 방법에서 ‘딴딴디’라는 방법으로 바꾸면, 더 민주화되리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 여름 방학쯤에 대륙을 가 보려고 계획했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다. 나는 앞으로 천천히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봉천으로, 북경으로 ‘慢慢地’ 여행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에 돌아가서는 한민족의 우의성과 저력이 무엇인지를 ‘빨리 빨리’ 중국의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겠다. \*